

# 나주시 벼 농가 중복지원 내년에도 강행 논란

### 경영안정자금 예산 17억 편성키로...예산 남용 선심행정 지적 현안사업 뒷전 불만 속 市 “문제 알지만 현금지원 끊기 어려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나주시가 ‘혈세 낭비’ 지적과 함께 선거법 위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벼 농가 중복지원(광주일보 9월 3일 11면)을 내년에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이미 벼 농가들에게 벼 경영안정을 위한 현금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자체예산을 들여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벼 농가 지원 비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체 예산 17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벼 농가들에게 논지 1ha당 현금 22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만 벼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중복 논란 등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해 14억원은 기존처럼 농가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무농약인증 4

년차 농가에 ‘친환경농장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나주시에 벼 농가 지원 사업비(벼 경영안정대책 비) 43억원(도비 40%, 시비 60%)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각 벼 농가들에게 현금으로 1ha당 54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나주시 예산만 25억8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결국 나주시역 벼 농가들은 전남도와 나주시의 벼 농가지원 사업비로 1ha당 54만 원, 나주시 자체지원 사업비로 22만 원 등 해마다 76만 원을 중복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나주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벼 농가는 지난해 기준 9120농가에 이른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

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은 물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지원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을 터져나온다.

일각에서 내놓은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농민지원을 해야한다면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중복지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갑자기 현금지급을 중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내년도 중복지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농민관련 단체들과의 조율을 시도하기는커녕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는 등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와 농민관련 단체들과의 조율을 시도하기는커녕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는 등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

를 취합하겠다는 나주시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 등을 의식해 내년에도 중복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행부(나주시)의 잘못된 예산 남용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나주시의 회도 나주시에서 지역구 쟁기기술로 쟁겨주는 ‘의원 포괄사업비’와 지역구 벼 농가들을 의식한 나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주시의 한 공무원은 “시의회는 물론 시청 내부에서도 모두 벼 농가에 대한 중복 지원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민선시대의 가장 민감한 표심과 직결된 탓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긴급한 사업 예산마저 줄이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중복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지역발전에도 역행하는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13.6%로, 전국 평균(37.7%)은커녕 전남 평균(14.5%)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공도 3대 메이저대회 오늘부터 잇따라 개최

나주에서 공도 3개 메이저 대회가 열린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나주남산공원 내 인덕정에서 제31회 전국공도종합선수권대회, 제23회 명궁도대회, 제138회 전국남녀공도승단 대회가 개최된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대한공도협회와 나주시공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국내 최고 공사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전국공도선수권대회는 대한공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각공부와 카본공부로 나뉘 참가하며, 전국남녀승단대회는 4단 이상 승단을 위해 전국의 공사들이 모여 그 동안

갈고뒀는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명궁도대회는 대한공도협회에서 인정받은 명궁 정호자들이 겨루는 대회로, 메이저대회에서 특별한 성적으로 우승하거나 5단 이상의 고단자들이 명궁 칭호를 받고 참가한다. 명궁도 대회 참가자는 민족의 전통 활인 각종과 팽이를 단 족시만 사용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국 공사들의 화합과 소통을 유도해 민족문화 전통스포츠인 공도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에서 1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만큼 나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나주소방서 대원들, 임산부 구급차안 순산 도와 화제

나주시 반남면의 20대 임신부가 119구급차 안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건강한 여아아이를 순산해 화제다. 28일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경 산모의 진통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안에서 산모의 2차 진통 시작 후 2분 만에 순산하는 것을 도왔다. 당시 순산에는 출산경험이 있는 현장대원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모는 광주기독교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아이와 함께 모두 건강한 상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20대 산모의 순산을 도와 나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28일 나주소방서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나주시, 인근 지자체와 문화발전 힘모은다

### 광주 남·광산구와 협약...지역문화 역량 높이기로



강인규 나주시장과 최형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오른쪽부터)이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생 연계발전 협약식을 갖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인접 생활권인 광주시 광산구, 남구와 문화발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 사업을 강화하기로 협약했다.

강인규 나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형호 남구청장은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생 연계발전 협약식을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공동개발 및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적으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인접하고, 역사문화적으로도 공동문화권을 형성해 온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생활문화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동 추진,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를 위한 연계과제 개발, 마을공동체 역량 제고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협업 등이다.

또 사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실무자와 전문가 10명 안팎이 참가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정례회의를 구성해 분기별 1회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3개 자치단체 협의회는 특히 활발한 교류

와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동사업개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겨냥한 다양한 공동 사업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사문화적으로 남도문화의 탯자리인 나주가 최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KTX 나주역 개통, 빛가람동 1만평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동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문화관광정책을 공동개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지역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2000년전 시간여행 떠나볼까 제1회 ‘마한문화축제’ 내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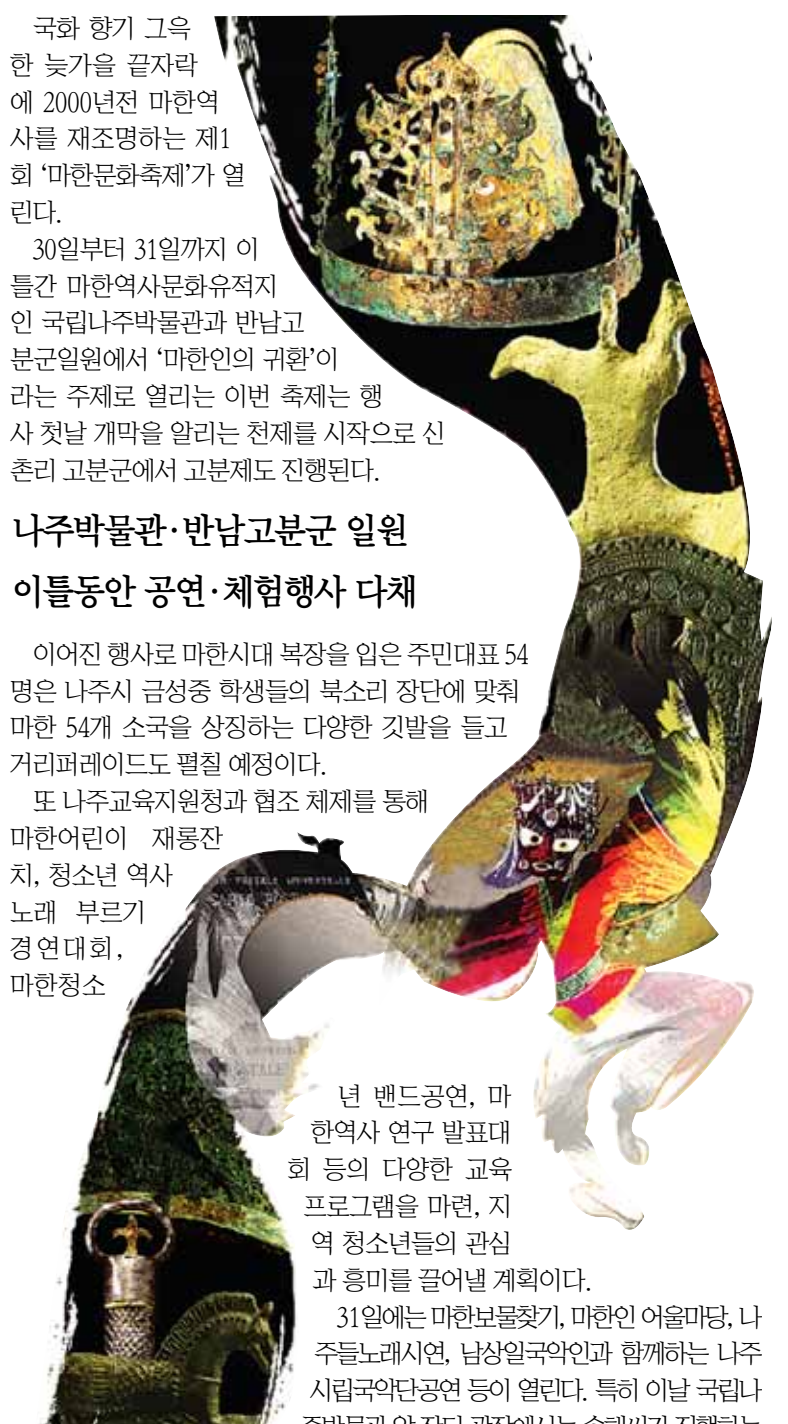
국화 향기 그윽한 늦가을 끝자락에 2000년전 마한역사를 재조명하는 제1회 ‘마한문화축제’가 열린다.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마한역사문화유적지인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일원에서 ‘마한인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행사 첫날 개막을 알리는 천제를 시작으로 신촌리 고분군에서 고분제도 진행된다.

### 나주박물관·반남고분군 일원 이틀동안 공연·체험행사 다채

이어진 행사로 마한시대 복장을 입은 주민대표 54명은 나주시 금성중 학생들의 북소리 장단에 맞춰 마한 54개 소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깃발을 들고 거리퍼레이드도 펼칠 예정이다.

또 나주교육지원청과 협조 체제를 통해 마한어린이 재롱잔치, 청소년 역사 노래 부르기 공연대회, 마한청소



년 밴드공연, 마한역사 연구 발표대회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계획이다.

31일에는 마한보물찾기, 마한인 어울마당, 나주돌노래시연, 남상일국악인과 함께하는 나주시립국악단공연 등이 열린다. 특히 이날 국립나주박물관 앞 잔디 광장에서는 송해씨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 녹화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국립나주박물관과 연계한 주요 기획행사와 공연행사도 마련된다. 마한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마한사람들의 일상과 춤’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학술포럼과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고클럽 남남콘서트 7080공연이 열리며,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공동으로 금동신발을 첫 공개하는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를 주제로 한 전시행사도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역사체험프로그램으로 옥목걸이 만들기, 금동신발 만들기, 마한의상 체험, 움집체험, 전통놀이 체험, 마한문양페이스·핸드페인팅, 목판·실크스크린 체험, 솟대 만들기, 마한 5곡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돼 있다. 또 일반 전시 및 체험행사로 메밀 등을 이용한 음식전시, 천연염색 전시 및 체험, 유리옥 제작시연, 옥공예 전시 및 체험, 짚풀공예 전시 및 체험, 야생화전시 및 미니화분심어하기, 국화꽃전시, 고대화페전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도 진행된다.

기타 체험프로그램으로 조랑말 타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동 미니 동물원, 미니 곤충박물관, 지미명당길 자연거길 투어, 고구마 구워먹기, 소원터널, 가운뎃거리, 마한보물찾기, 되살아나는 마한의 빛 불꽃놀이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선사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성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